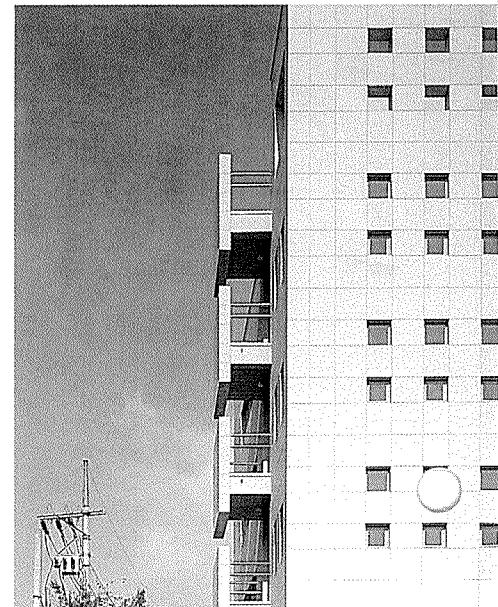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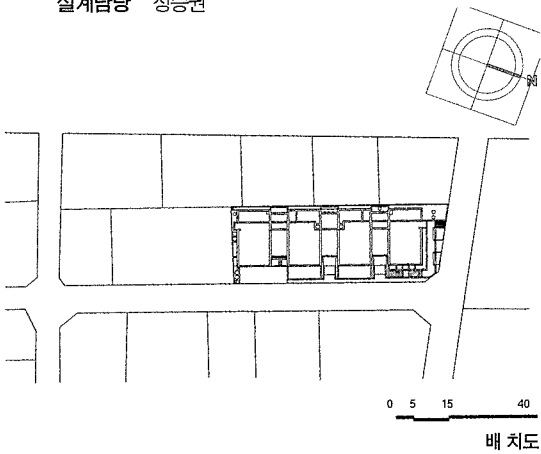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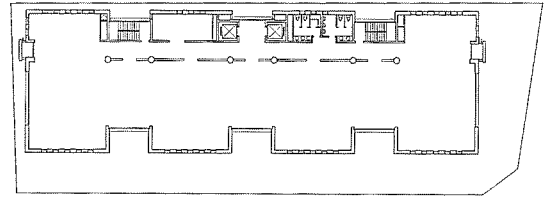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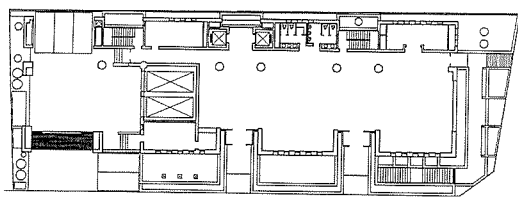
MODUS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Research Foundation Building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l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0-2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제한지구(5층, 18m) |
| 대지면적 | 1327.8㎡ |
| 건축면적 | 769.59㎡ |
| 연면적 | 7805.04㎡ |
| 건폐율 | 59.99% |
| 용적률 | 293.09%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 규모 | 지하4층, 지상5층 |
| 외부 마감 | 화강석 버너마감, 알루미늄 커튼월 |
| 설계담당 | 정승권 |





0.1 6 10
3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3~5층)



이 건물은 1997년의 설계경기로 만들어진 작업이다. 정부출연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단체인 한국장학회의 회관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공공프로젝트였다. 규모 또한 그 즈음 다루고 있던 것들에 비하면 상당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의외로 단순하여서 업무시설과 집회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공간이었다. 통칭 법조단지라 불리는 서초동의 검찰청 언저리는 묘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꽃동네의 살벌했던 여운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에 적용되는 18 m의 높이제한이 결정요인이었다. 애초에는 주거지역으로 구획되었을 것이 분명한 필지를 두서너트 모아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 도시설계가 마련하고 있는 방향에 밀리듯 맞추어져서 특색있는 개발이 되고 있다. 도로조건이나 도시적 성격에 관계없이 대지의 조합이 가능한 이해관계에 의해 건축이 결정되는 것이다. 더구나 산기슭에 자리한 검찰청을 가리지 않도록 요구되어진 높이제한은 민원이 제기되면 풀릴 듯 하다가 다시 고착되는 완고함을 되

풀이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결정은 시간이 내린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면 결국 18m안에 다섯 층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슬아슬한 파라펫 높이와 겨우 만들어낸 천정고로 이루어진 이곳의 건물들은 한결같이 되지만 모습을 하고 있다. 1층 바닥 지면까지 끌어내려져 있는 점만 빼면 어디에도 눈길줄 곳이 없다. 정보화시대의 보안유지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권위 앞에 앞드러듯 납작해야만 하는 곳이다. 길게 늘어져 있는 대지형상과 완성되어있지 않은 주변상황에 대응하는 방법론은 두 가지였다. 대지의 길이대로 연속되거나 주변스케일에 맞추어 분절되는 것이다. 연속의 기다란 이미지와 나누어진 벽의 도열하는 이미지 중에서 후자로 결정한 것을 8m도로의 도시적 조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였지만 풀릴지도 모르는 고도제한에 대한 해법이었다. (도로 폭이 사선제한을 감수하더라도 3층 더 얹을 수 있었다.)